

경찰관서 의사 도전... “꿈 포기하는게 더 어려웠어요”



경찰관 재직시절

35세 ‘초보의사’ 조선대 병원 인턴 위성아씨

“취업난이 심했지만 꿈을 포기하는 일이 더 어려웠던 걸요. 경찰로 근무하면서 소의계층에 관심을 갖게 됐어요. 앞으로 그들을 위한 의식을 펼치고 싶습니다.” 공학도에서 경찰로, 다시 의사로 끊임없는 도전을 이어가는 위성아(여·35)씨는 ‘초보 의사’로서 당찬 포부를 밝혔다.

IMF(1998년)학번으로 전남대학교 컴퓨터 공학과에 입학한 위씨는 1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경찰’로 사회로의 첫 발을 내 뒀었다. 대학교 4학년 때, 3살 차이 나는 오빠가 경찰 공무원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며 “다른 사람에게 의로운 일을 하는 경찰”에 매료됐기 때문이다.

첫 근무지는 경기도 과천시경찰서. 그의 첫 번째 사회 생활은 그렇게 시작됐다.

하지만 경찰 업무는 생각만큼 녹록지 않았다. 3교대로 근무하며 밤을 새야 하는 게 일이고, 술에 취한

민원인, 험악한 범법자들을 상대하는 일이 꿈꿨던 ‘경찰의 업무’와 달랐던 탓이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경찰이 민중의 ‘지팡이’보다 ‘지탄의 대상’이란 사실’이 가장 충격적이었어요. 감사의 인사보다 욕이 익숙했을 정도니까요.”

그러나 친구들에게 ‘공무원’인 그는 동정보다 동경의 대상이었다. 번민은 혼자만의 몫이었다. 그러던 중 위씨는 안양경찰서로 근무지를 옮기면서 시의사회와 인연을 맺게 됐다.

그는 “경찰과 의사는 타인을 돕는 직업이라는 게 닮았지만, 인정받는 건 차이가 있었다”고 했다. 위씨는 다시 꿈을 꾸게 됐고, 안정적인 공무원직을 뒤로하고 새로운 도전에 나서기로 마음 먹었다.

목표는 의학전문대학원 진학. 경찰에 몸담으면서 시험을 준비했다. 일이 끝나면 부리나케 도서관을 찾아 새벽까지 공부했고, 주말엔 노량진을 찾아 10

시간이 넘도록 문제풀이 수업을 들었다. “합격하지 못하면 경찰을 그만 두고 준비하겠다”며 독하게 마음을 다잡던 시기였다.

책 한 권에 기출문제와 모의고사에 실려 있는 주요 원리와 핵심을 정리하고, 작은 노트에 그대로 옮겨 화강석을 갈 때도 들고갈 만큼 공부에 ‘미친’ 때였지만, 위 씨는 “오히려 새로운 미래를 그리며 마음이 설렘”고 당시를 떠올렸다.

지난 2010년, 경찰에서 그는 의사가 됐다. 조선대학교 의과전문대학원을 수료한 뒤 위씨는 인턴 의사로 또 다른 시작을 앞두고 있다.

아직 ‘초보 의사’이지만, 가훈인 ‘7전8기’와 ‘낙수물이 바위를 뚫는다’는 격언을 가슴에 품고 그녀는 가슴 부푼 하루를 보내고 있다.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인턴 생활중인 현재.

전남개발공사, 공기업 발전공로 3명에 표창장



전남개발공사 전순현(왼쪽 두번째) 사장은 3일 열린 월례초회에서 지방공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안전행정부 장관상을 수상한 최호경·이강욱 과장, 최혁 대리(왼쪽부터) 등 직원 3명에 대해 표창장을 전달했다.

광주 복구, 저소득층 지원 전국 최우수기관



광주시 복구(청장 송광운·왼쪽 세번째)는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 중앙본부에서 실시한 저소득·취약계층 지원사업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동신대-나주시 향교 활용사업 협약



동신대학교(총장 김필식)는 최근 나주시에서 나주시(시장 임성훈)와 나주시향교 활용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살아 숨 쉬는 향교·서원문화재 활용사업’ 성공을 위해 협력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광주대생, SCI급 논문 공동발표

(과학기술논문 인용색인)

오하나씨, 황칠나무 추출물 신경세포 사멸효과 입증

여대생이 대학원생도 발표하기 어려운 SCI(과학기술논문 인용색인)급 논문을 발표했다.

3일 광주대학교(총장 김혁중) 산학협력 선도대학 사업단에 따르면 대체의학과 3학년 오하나(24)씨가 교신저자인 김승 교수와 공동으로 최근 SCI급 저널인 뉴로케미컬 리서치(Neurochemical Research)에 논문을 게재했다.

이 저널에 발표된 논문은 황칠나무 추출물(Rutin)이 신경세포 사멸에서 보호효과가 있다는 것을 확인한 것으로, 황칠나무가 신경퇴행성 질환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연구에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다.

오하나씨는 “이 연구를 위해 실험실에서 밤낮을 보냈다”면서 “논문을 통해 조금이나마 나이 드신 분들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게 된 것 같아 공동 연구자로서의 보람을 느꼈다”고 소감을 밝혔다.

교신저자인 김승 교수는 “그동안 황칠나무가 막연히 사람에게 좋은 것으로만 알려져 있었는데 이번 연구를 통해 구체적인 효과를 확인했다”며 “생리활성이 검증된 만큼 아직 완치법이 확립되어 있지 않은 신경질환에 부작용 없이 지속적으로 섭취할 수 있는 건강 기능 식품개발이 가능하게 됐다”고 말했다.

광진영 전남대 교수 과학기술단체연합 부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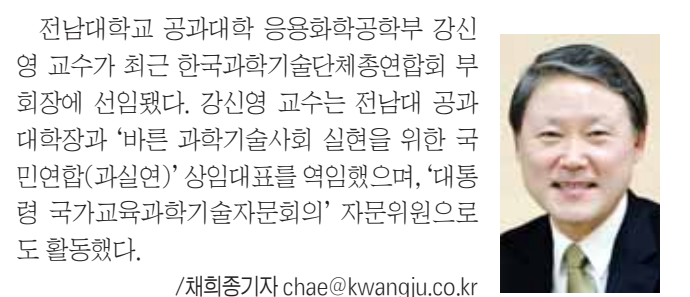
광주대 산학협력선도대학 사업단은 이번

논문을 계기로 산학 공동기술 개발과 사업화 과제를 수행하는 한편 황칠나무 잎 추출물도 노인성 질환 예방을 위한 식품 개발과 특허출원에 나섰다.

황칠나무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에서만 자라고 있는 나무로 학명이 Panax(그리스어)로 만병통치약이란 의미를 갖고 있다. 전남도가 전국 재배량의 99%를 차지하고 있고 장흥, 완도군을 중심으로 10년생 이상의 수목들이 대량 재배되고 있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광진영 전남대 교수 과학기술단체연합 부회장



전남대학교 공과대학 응용화학공학부 광진영 교수가 최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부회장에 선임됐다. 광진영 교수는 전남대 공과대학장과 ‘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과실연)’ 상임대표를 역임했으며, ‘대통령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 자문위원으로도 활동했다.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주)인천상사대표이사 김인천·왼쪽)는 최근 사회공헌협약을 맺고 모금함을 설치, 고객들이 스마트폰을 구입할 때마다 1000원씩을 모금함에 기부하기로 했다.

인사

- ◆광주상공회의소
 - ◇승진 ▲기획진흥부장 강조병 ▲검정팀장 채화석
 - ◇전보
 - ▲총무부장 겸 회원지원부장 이우형 ▲회원지원부 과장 김은희
 - ▲협력사업부 검정팀 과장 김노진 ▲협력사업부 검정팀 대리 박종현
- ◆광주문화재단
 - ◇승진 ▲문화예술지원팀장 유은영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팀장 정혜영
 - ◇전보
 - ▲정책기획실장 선재규 ▲문화사업실장 박호재 ▲기획홍보팀장 김지원 ▲문화나눔팀장 송진영 ▲문화관광콘텐츠팀장 광규호 ▲시민문화팀장 김영순 ▲회계관리팀장 박강배 ▲전통문화관 팀장 남상철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 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38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요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47 FAX 062-222-4938, 222-4918

화족

▲박승현(영진종합건설 회장·kpc 호남총동맹회 회장)·김영씨 삼남 성모군 강삼중·김영애씨 차녀 수련양=8일(토) 오후 1시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 하모니홀.

동창동문회

▲목포고 제5회 동창회(회장 이규중) 및 월례회의=5일(수) 오후 6시 금강산식당 062-224-0808.

종친회

▲재광 경주김씨 종친회 및 월례회의 5일(수) 오후 5시30분 맛집 한겨레(금남로 카톨릭센터 뒤) 사무국장 김재찬 010-6455-6296.
▲(사)전주이씨 대동중약원 광주·전남 지원(지원장 이달우) 제36회 정기총회=5일(수) 오전 11시 도지원 회의실 3층 062-225-5636.

▲나주 정씨 호남 종친회(회장 정영주) 정기총회=5일(수) 오전 11시 농성동 상록회관 3층 010-2051-4190.

알림

▲여성발전센터 무료 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없이 1366. 휴대전화 사용자 062-1366.
▲광주북구정신건강증진센터 무료 정신건강상담 북구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무료 정신건강상담 및 교육, 만성신장엔인대상 가정방문 등을 진행. 062-267-5510.
▲(재)한국소년보호협회 광산청소년지립생활관 호남지역 가족 및 위기 청소년보호시설=무료숙식, 심리치료, 자립지원, 수시 입소가능, 12~22세 남자. 062-953-6101.
▲광주 여성의 전화 무료 상담 및 법률·의료비 지원=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직장내 성차별, 이주여성 문제. 상담 062-363-0442~3.
▲광주종합사회복지관 아동가족상담

센터 무료상담=아동심리적 발달·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미술치료, 언어치료, 자녀양육상담 062-264-4370, 5308.
▲오치종합사회복지관 이주여성 한국사회 적응력 향상 무료 교육=요가, 웃음교육, 푸드아트테라피, 매주 월·수요일 오전, 선착순 20명. 062-267-3700.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사무소 장애차별 상담=국번 없이 1331, 우편 방문-광주시 동구 제봉로 광주은행 본점 6층.
▲밀알회 생활법률 무료 상담=내용증명, 고소장, 호적정리, 가정 고민, 실버 결혼, 이발, 주례 서주기, 묘자리 바꾸기 등(실버에 환함) 062-365-8228.
▲비틀기 가정상담소 무료 상담=인터넷 및 전화 상담. 방문 상담은 예약제. 062-652-1366, 062-434-1366 www.gene-korea.com.
▲대한법률구조공단 광주지부 법률상담=월~금 오전 9시~오후 6시.

모집

▲서석초교배드민턴클럽 회원모집 배드민턴으로 건강을! 운동장소: 서석초등학교 체육관 매주 월~금요일 오후7시~10시 010-8835-7355.
▲2014 청년취업아카데미 연수생 모집 광주·전남 대학교 졸업(예정)자 매주 금·토요일 생산관리품질경영·해외무역실무·영업마케팅실무 분야 교육 진행. 교육비 무료, 학점인정 우수 수료생 참여기업 채용추천 기간 3월13일까지 (사)인재육성아카데미(www.gjmyjob.com) 062-224-7733,9
▲밀알회 영산강환경대학 명예 환경감사원·생태 해설사 양성과정 2기 모집=물을 사랑하고 자원봉사 활동에 관심이 있는 분, 매주 화요일 오후 7시~9시 062-526-0314 3월25일 까지 모집.

▲광주여성하모닉스합창단(지휘 이준) 단원은클래식음악을 좋아하는 광주지역 거주 여성, 매주 월·목요일 오후 2~4시 광주문화예술회관내 시립소년소녀합창단실 010-4416-9883.
▲하남근로자종합복지관=1~3월 여가운영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영어회화, 중국어회화, 컴퓨터, 방스댄스, 스포츠댄스, 요가 062-951-9461.
▲농성문화의 집 오전요가 수강생=균형있는 몸매와 정신을 맑게 깨우는 요가 관심있는 분이려면 누구나 환영. 매주 화·금 오전 9시 30분~10시30분 062-362-2072.
▲광주·전남 영화·드라마 엑스트라 및 보조출연자=영화에 관심이 있으면 누구나 지원 가능 (사)한국영화인총연합회 광주광역시지회 062-674-4008~9.
▲광주·전남 영화·드라마 엑스트라 및 보조출연자=영화에 관심이 있으면 누구나 지원 가능 (사)한국영화인총연합회 광주광역시지회 062-674-4008~9.
▲광주·전남 영화·드라마 엑스트라 및 보조출연자=영화에 관심이 있으면 누구나 지원 가능 (사)한국영화인총연합회 광주광역시지회 062-674-4008~9.
▲광주·전남 영화·드라마 엑스트라 및 보조출연자=영화에 관심이 있으면 누구나 지원 가능 (사)한국영화인총연합회 광주광역시지회 062-674-4008~9.

림동 샘신협 3거리 070-4065-5054, 010-8947-3006.
▲(사)한국영화인 총연합회 광주지회 ‘엑스트라, 단역 대 모집’=광주, 전남에서 촬영하는 영화, 드라마에 출연하실 보조출연자분 모집. 영화를 좋아하고, 시간 약속 잘 지키는 분 환영.

영. 062-385-9077.
부음
▲고효임씨 별세 박영혁·영모·영희씨 모친상=발인 4일(화) 무등장례식장 102호 062-515-4488.

謹 삼가 故人의 冥福을 빕니다 卍

101호 故양동남 님(남/69세) 子/子: 양정민/이정화, 석진/최진희 女: 양미정 • 호 실: 101호 • 장 지: 영락공원	102호 故윤원희 님(남/41세) 母: 이정희 • 호 실: 102호 • 장 지: 영락공원
201호 故이강원 님(남/80세) 子/子: 이정관/윤미영, 정환 女/女: 이정란/윤현주 未亡人: 양동순	301호 故정승숙 님(여/85세) 子/子: 정정환/심은미, 영환 女/女: 정순화/박문석, 성남/김용선, 삼남/손정우 未亡人: 정승숙
401호 故이혜순 님(여/48세) 子: 정혜성 女: 정혜민 夫: 정진용 • 호 실: 401호 • 장 지: 분빈정사	402호 故정호근 님(남/75세) 子/子: 정정환/이미희 女/女: 정정희/김성훈, 명희 未亡人: 조현자 • 호 실: 402호 • 장 지: 영락공원

마음까지 편한 **孝** 금호장례식장 http://www.mykumho.com 문의 (062)227-4000